

# 아르헨티나, 곡물산업 개황

대두와 마찬가지로 아르헨티나는 옥수수에 있어서도 국제시장에서 주요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다. 2000년 아르헨티나는 세계 6위의 옥수수 생산국이며 수출 면에서는 미국 다음인 2위이다. 비록 미국이 옥수수 무역을 주도하지만 아르헨티나는 중국과 함께 옥수수를 안정적으로 수출하는 유일한 국가이다. 아르헨티나의 곡물중에서 옥수수, 소맥, 유지종자 등의 개황을 살펴본다.

## 1. 옥수수, 생산량 1990년대 배증

1990년대 초반 이래 아르헨티나의 옥수수 생산, 수출, 그리고 세계시장 점유율이 재배면적 및 단수 증가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1999-2001년 아르헨티나의 옥수수 세계시장 시장점유율은 13.2%로서 1989-91년 6%에서 두 배나 증가하였다.

아르헨티나 대두 부문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 옥수수 부문에도 같은 영향을 미쳤다. 아르헨티나 토지는 옥수수에 재배에 매우 적합하고, 남반구가 가지는 생산주기 특성으로 인해 수출에 있어 강한 계절적인 경쟁력을 가진다. 이와 더불어 내수시장이 좁기 때문에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 때문에 아르헨티나가 지니는 옥수수 생산이점은 곧바로 수출 및 세계 수출시장점유율 증가로 이어진다.

1990년대 초반의 정치경제개혁 이전 농산물수출에 과세를 하고 농자재 및 기술의 도입을 제한한 정부정책으로 인해 옥수수 부문은 취약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의 옥수수 파종면적은 1970년에 490만 ha에서 정점을 이룬 후 (수확면적은 410만 ha) 옥수수의 국제가격도 낮은 상태에서 계속 감소하여 1988년에는 170만 ha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부터 아르헨티나의 옥수수 생산은 회복세로 돌아섰다.

옥수수의 국제가격이 호조를 띠어 투입재를 보다 집약적으로 이용하고 다른 작물에서 옥수수로의 작목전환이 이루어져 옥수수 생산이 1997년에는 1,940만 톤에 달하는 기록을 세웠다. 단수 역시 ha당 6.1톤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수수 수확면적은 320만 ha에 불과해서 수확면적이 정점이었던 1970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아르헨티나 단수는 앞으로도 계속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1990/91년과 2000/01년사이 옥수수 단수는 거의 50%가 늘어났지만, 아직까지 아르헨티나의 옥수수 단수는 미국의 8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유전자변형 콩 재배가 확대됨에 따라 옥수수-콩의 윤작에서 잡초제거가 용이해졌다. 또한 품종개량과 비료 증투로 인해 옥수수 단수가 증가 일로에 있다. 앞으로 옥수수 단수는 주로 비료의 증투에 달려 있다.

아르헨티나 농민들도 유전자변형 옥수수 품종을 재배한다. 2001년의 경우 전체 옥수수 재배 중 20%가 곤충에 면역력을 지니는 유전자변형 품종(Bt)인데 모두 유럽연합에 의해 승인을 받았다. 이와 같은 유전자변형 품종 비율은 같은 해 미국의 26%와 비교된다. 1998년부터 주요 고객인 유럽연합과 일본의 승인을 받은 직후 새로운 옥수수 품종을 승인하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1998년 이후 낮은 옥수수 가격으로 인해 생산이 감소추세에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두로 생산이 전환되고 생산자들은 비료와 농약의 사용을 줄

이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옥수수 재배농민들은 이윤을 결정하는 옥수수 가격과 투입재 가격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다. 예를 들면 아르헨티나 생산자들은 브라질에서 사료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인지하고, 지역 인센티브 변화에 대해 반응을 할 것이다. 아르헨티나의 과종면적 대비 수확포기면적의 비율은 18%로서 8%인 미국에 비해 높은 편인데 1988/89년에는 37%에 이르기도 하였다.

## 2. 소맥, 세계 5위 수출국

지난 40년간 아르헨티나는 계속해서 밀을 수출해 왔다. 과거 10년간 아르헨티나의 밀 세계시장 점유율은 1989-91년 4.9%에서 2001년 10.2%로 증가하여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다른 곡물과 마찬가지로 아르헨티나의 밀 산업은 내수시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수출지향적일 수밖에 없다. 브라질이 아르헨티나 밀수출의 주요 시장이다.

아르헨티나 밀 산업은 시장상황에 따라 부침을 거듭했다. 수확면적이 1982년 730만 ha로 정점에 이른 후 1992년에는 국제 밀 시세가 낮아 420만 ha로 감소하였지만 2001/02년에는 상황이 호전되어 680만 ha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1997년 이래 밀가격이 낮고 다른 작목의 수익성이 높아 밀 재배면적이 감소추세에 있지만, 밀생산량은 크게 줄지 않고 단수도 프랑스 품종의 도입에 따라 증가할 것이다. 2001년 아르헨티나의 밀 생산량은 1,750만 톤으로 추정되는데 이중 1,300만 톤이 수출될 예정이다.

## 3. 잡곡대신 재배되는 유지종자

아르헨티나에서 옥수수 이외의 사료곡물인 수수와 보리생산은 1970년대 초반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수수의 재배면적은 300만 ha가 넘었

고, 보리 재배면적도 100만 ha가량 되었다. 사료에 대한 내수기반이 취약하고 국제시세가 보합세를 나타내 잡곡의 상대적 수익성이 감소해 생산이 줄어든 것이다. 1995-97년 아르헨티나의 수수 재배면적은 80만 ha에 불과하였고, 보리 재배면적은 30만 ha에 불과하였다. 최근 아르헨티나는 수수 수출에 있어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의 수출국이지만 보리는 별로 수출하지 않는다.

또 다른 유지종자인 해바라기는 1980년 후반부터 생산이 늘어나고 있다. 1998년 파종면적이 400만 ha를 넘어서 1986년에 비해 두 배가 늘어났다. 교잡종으로 인한 단수증가로 생산량이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식물성유의 국제가가 낮아 1998년부터 재배면적이 줄어들어, 2000/01년 해바라기 수확면적은 190만 ha에 불과하였다. 아르헨티나는 계속해서 해바라기씨 기름 및 깻묵 수출에 세계 1위를 견지하였지만 생산과 마찬가지로 해바라기씨 수출은 변동이 심해 1994년과 1998년에는 90만 톤을 수출했지만 2000년에는 12만 톤을 수출하는 데 그쳤다.

아르헨티나에서 땅콩은 중요한 유지종자이다. 땅콩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180일에서 200일 가량의 무상일수가 필요하고 온화한 기후와 부드러운 토양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땅콩은 대부분이 중부 코도바(Cordoba)에서 재배되는데 밀, 대두와 경합관계에 있다. 이 때문에 땅콩의 파종면적은 작물의 상대가격과 수익성에 따라 변동이 심한 편이다. 예를 들면 1992년 파종면적은 11만 ha였는데 1997년에는 41만 ha, 2000/01년에는 23만 ha이다. 1997년의 경우 아르헨티나는 세계 제1위의 땅콩수출국이었지만 그 후에는 2위 또는 3위에 머물렀다.

아르헨티나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목화는 목화재배 적지- 즉 목화 재배에는 적합하지만 다른 작물 재배가 곤란 지역-인 북부에서 재배된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아르헨티나 목화는 낮은 국제가격, 기후의 불량, 브라질화폐에 비해 과대평가된 환율 등으로 인해 고전을 면치 못하였다. 결과

적으로 아르헨티나의 목화 수확면적은 1995년 100만 ha에서 2000년에는 38만 ha로 감소하였다.

아르헨티나에서 벼는 대개 엔트레 리오스(Entre Rios)와 코리엔테스(Corrientes)의 북부지방에서 재배된다. 거의 모든 벼가 관개논에서 재배되며 목화와 마찬가지로 벼 주산지는 경합이 되는 대체작물이 없는 실정이다. 다른 농산물과 마찬가지로 쌀 또한 주로 수출용으로 생산되는데 대부분이 브라질로 수출된다. 목화와 마찬가지로 쌀 역시 국제가격이 낮게 유지되고 정부보조가 없기 때문에 식부면적이 감소추세에 있다. 수확면적을 기준으로 할 때 1998년 28만 9,000ha에서 2000년 13만 3,000ha로 줄어들었다.

1990년 초반 브라질의 대대적인 평가절하로 인해 브라질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수출의존성이 많이 감소하였다. 이 때문에 1999년 쌀과 목화의 수출이 급격히 축소되었다.

(권오복 obkwon@krei.re.kr 02-3299-42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